

5·18때 동생 죽인 계엄군 쫓아 '30년 복수극' 김무정씨 “너무 지쳤다, 이젠 용서하고 싶다”

창사 58주년 특집 발굴 보도

‘김형진은 1980년 5월23일 계엄군인 충남 부여 출신 포병학교 소속 신○○ 상사가 대검으로 흉복부를 난자해 국군광주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중 1983년 11월4일 사망했습니다. 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서 국민의 군대가 정권 찬탈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김형진씨 비석 뒷면에 새겨진 비문이다. 이는 고인의 비참한 죽음을 잊지 못한 김형진씨의 형이 새긴 것이다.

수소문끝에 대검 들고 한밤중 급습 3차례 복수 결행 모두 실패로 끝나

지난 17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묘지번호 2-99번 김형진(사망 당시 32세)씨의 묘 앞. 갑자기 흐려진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흠뻑릴 듯했고, 참배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 오고 있었다.

동생 묘 앞에 선 김무정(66·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는 종이컵에 소주를 한 잔 따면 뒤,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전쟁에 지친 노병 처럼 고단함과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절반 가량 병에 남아있던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신 그는 술 기운이 도는지 한참 감고 있던 눈을 서서히 뜨면서 저속과도 같았던 ‘30년의 복수극’을 들려줬다.

“나이를 먹다 보니, 동생을 죽인 신상사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도 많이 사그라졌네요. 그가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30년동안 그는 가슴 속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살았다.

형진씨는 1980년 5월23일 오후 3시께, 광산군 신촌리 동부파출소(현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송정치안센터) 앞에서 육군포병학교 근무대대 소속 신상사가 휘두른 대검에 배와 등을 찔려 중태에 빠졌다. 당시 신상사는 근무 부대 인근인 신촌리에 살

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마을 주민과 친척의 증언을 통해 무정씨는 신상사의 존재를 알게 됐다.

“차라리 남들처럼 가해자를 모른다면 그냥 억울하기만 했을 텐데... 누가 내 동생을 죽였는지를 뻔히 알면서 같은 하늘 아래 살인자와 함께 살아야 했던 세월이 미치도록 원망스럽습니다.”

그는 수소문을 해 신상사의 행적을 찾았고, 가족 몰래 군대물품을 파는 시장에서 대검을 구입했다. 신상사를 죽인 뒤 마실 극약도 늘 지니고 다녔다. 한밤 중 신상사의 집을 급습하고, 직접 고향 마을을 찾아가는 등 3차례 걸쳐 복수를 결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가족의 아픔도 컸다.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형진씨가 사망하자, 이듬해 화장으로 아버지마저 숨을 거뒀다. 함께 신상사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던 다른 동생 형식(당시 50세)씨도 2003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복수를 위해 집 안에 숨겨 둔 대검은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곤 했었다. 남편의 결심을 눈치챈 아내가 찾아내 매번 버렸던 것이다. 그의 가족은 늘 그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지 않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듯 노심초사하



지난 17일 오후 7시 동생을 죽인 계엄군을 30년동안 추적해 온 김무정씨가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동생의 묘 앞에서 쓸쓸하게 생각에 잠겨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루에도 수십번씩 분노 치밀지만 또 다른 비극 더 이상은 없어야지”

며 살아왔다. 그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누빈 강인한 군인이었다. 1967년 베트남전쟁에 파병돼 심자상부대 하사로 복무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는 전장에서 총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가 나중에 안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지만, 자신과 동갑내기인 신상사도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부대는 달랐지만 동생을 죽인 군인이 한 때 같은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전우였다는 것이 아이러니할 뿐이었다.

그 또한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군인의 사명을 잘 알지만, 죄 없는 국민에게 아무 이유없이 대검을 휘두른 신상사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교전 중에도 손을 들고 나오는 베트콩은 쏘지 않았는데, 신상사는 무장도 하지 않은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같은 갈로, 물은 물로, 불은 불로 되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검을 사서 똑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월에 칼날이 녹슬 듯, 30년이란 세월 앞에 그도 늙었다. 칼을 품고 원수를 쫓던 서른여섯 살 젊은이의 불타는 복수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는 ‘가장 고상한 복수가 용서’라는 것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 깊은 곳에서 불이 일곤 한다. 머릿속으로는 세월이 흘렀으니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울분이 모두 가시지는 않았다.

“2년 전부터 이제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쉽지는 않네요. 지금이라도 눈 앞에 나타난다면 몽둥이든, 솔병이든 손에 잡히는 걸로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습니다.”

지난 1993년 나주 영산포 선산에 묻혀있던 동생의 묘를 국립5·18민주묘지로 옮길 때 묘비명에 신상사의 이름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복수의 칼은 거뒀지만 동생을 잃은 억울함을 역사에 남겨 가해자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는 한 셈이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망치는 동생을 쫓아가 잔인하게 죽인 수법으로 볼 때 신상사는 결코 먼저 용서를 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상사의 사죄가 먼저 이뤄져야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이 날 것이며, 복수보다 힘든 용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3면에 계속)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알림

100년신문으로 가는 광주일보 지역민과 함께 하는 4대 사업

환상의 명품 유리공예 전시 ‘글래스 판타지아’

천년 전통 이탈리아 베니스 유리공예 명가의 작품들을 국내최초로 광주에 선보입니다. 오는 6월초 광주 문화회관 내 구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하는 글래스 판타지아에는 경탄을 자아내는 이탈리아 유리공예의 대작 명품 150여점이 전시됩니다. 수준높은 문화수도의 관람객들을 새로운 공예예술의 세계로 초대하는 이번 전시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짜 먹거리 여행정보집 ‘전라도 별미여행’ 무료 배포

맛과 멋의 고향 광주·전남의 볼거리 즐길거리에 진짜 맛집 올가이드를 더한 올 컬러 여행책을 발간합니다. 오는 7월 초 독자여러분께 무료 배포될 이 여행정보집은 최신 지역축제정보와 계절별 진미, 숙박정보 등이 가득 실려있습니다.

백구의 향연 ‘2010 배구 월드컵 브라질전’

남자배구 세계지존을 가리는 배구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 홈경기가 오는 7월 광주에서 개막됩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 팀을 맞아 이틀간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배구경기는 국제경기에 목마른 광주·전남 배구팬들의 가슴을 뻥 뚫어드릴 것입니다.



갈등은 풀고 지혜는 모으자 ‘지역현안 순회 대토론회’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의 현안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 해보는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결과 굴복이 아닌 해결과 협력을 모색하는 지역현안토론회는 공정한 진행과 최적화된 토론자 선정으로 현안 해결을 앞당길 것입니다.

光州日報社

창사 58주년 특집 지면 안내

5·18 '복수극 30년'.....3면	다도해의 보석 섬.....16·17면
민선 5기 당면과제.....5면	전기차 시대 이끈다.....18·19면
유력후보 인터뷰.....6·7면	무등산 옛길 이야기.....22면
지방선거 격전지.....8·9면	미리보는 광주비엔날레.....23면
광주·전남 뉴슈워 58년.....10·11면	글래스 판타지아.....24면
독자와 함께 58년.....13면	셀렌다, 남아공 월드컵.....30면

광주은행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그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KJB 광주은행